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6호 [7월 제24394호] 주제 102(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정론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민심의 불을 하늘에 달아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가 울려 퍼진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길은 근엄해지고 생각은 깊어졌으며 누구나 숨김없이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백두의 피어린 눈보라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전회의 불비속을 뚫고온 로병들은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새겨보며 심장을 뚫어내고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신문물을 펼쳐놓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근엄하신 눈빛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의 글줄들을 한자한자 음미해보고있으며 일터와 마을에서 당원들이, 근로자들이, 청년들이 혁명적단결의 본태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고있다.

한중도 못되는자들의 어려서는 망동이지만 그것을 결코 작은것으로 보지 않고 제때에 적발속행하였을뿐 아니라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준엄하고도 단호한 철수를 내린 우리 당의 결단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마음후회해하고있으며 우리 당, 우리 혁명대오가 또 한번 순결해졌다는 흥분으로 가슴들먹이고있다.

조국의 방선초소들에서 총대를 으스러지게 틀어던 병사들이 평양하늘을 우러러 피성을 머치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 종파놈들을 방사포의 불줄기로 태워서고도 땅크의 무한케도로 짓밟아버려서 땅에서 그 더러운 흔적을 말끔히 없애버리겠습니다.》 강선의 로동계급도 무죄추측을 불온 틀어치고 웅변다.

《혁명의 위생기들이 감히 태양의 빛발을 흐트러놓겠나! 이리까지 그지없다. 그 달된 눈들을 필멸 쫓는 전기기로 처넣어 뺄조차 주리지 못하게 하자!》

인민의 격노는 감동 줄 모른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얼마나 간고한 투쟁속에서 개척하신 혁명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험난한 시련의 통과속에서도 얼마나 순결하게 계승해오신 혁명인가. 수천수만의 값비싼 희생과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바쳐온 고귀한 피와 땀이 어려있는 우리 혁명의 붉은기에 감히 먹칠을 하려들고 이 땅의 천만 군민의 심장이 뻐와 실인 우리의 단결을 종단하여 산성생태의 양을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혁명가로서의 신념과 원칙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도 망심도 저버린 쓰레기같은 추물들이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었으니 민족의 이름으로, 혁명의 이름으로 징벌하지 않을수 없다. 밖에서 총을 겨누고 달려드는 잔류들과 다름없는 이런 배신자무리에게 차제적정은 오직 하나 조국과 인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

우리의 눈빛은 더 밝아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대하의 거세한 파도에 밀려난 물거품같은 자들의 말로를 굽어보며 우리 당이 보다 굳건해졌음을 가슴뚫듯이 느끼게 된 이 시각 그 어느때보다도 열렬하고 절결하고 크나큰 울림이 온 나라에 메아리친다.

우리는 김정은원수님밖에 모른다! 하늘땅이 바뀔때도 원수님만을 따르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는 신념의 노래, 충정의 노래 높이 부르며 당중앙장가를 우러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 천만산악을 넘어선대도 세한 파도를 헤쳐간대도 김정은원수님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불같은 맹세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우리는 보고있다. 또 한번 순결해진 우리 당의 모습을, 더욱더 강해지고 불패의 보루로 다져진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힘과 전도에 대하여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입니다.》

혁명은 단결이며 단결은 승리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단결은 생명이며 승리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항도사, 조선혁명의 필승불패의 개척사는 곧 자기의 대오를 순결하게 정화시키며 가장 공고한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였다.

파란만장의 조선혁명은 그 개척기부터 종파와의 힘겨운 투쟁속에 단결을 고수해왔다. 《5인1당》, 《3인1과》로 리합집산하면서 파벌과 분열을 일삼는 종파분자들의 악습이 조선혁명에 미치는 해독적 후과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부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신사적인 힘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뿌리인 《E. C.》를 결성하시던 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E. C.)는 어느 과에서 갈라져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도 말하면 어떤 종파에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나온 사람들도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E. C.)의 교에는 잡것이 섞여있지 않았다.》

자기 령도자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들, 혁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열정으로 피땀을 열혈의 투사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 바치는 삶을 더없이 신성하고 숭고한것으로 간주하는 정의의 인간들, 공명과 사리사욕이란 티끌만큼도 갖아볼수 없는 순결하고 광성적인 사람들이 하는것이 바로 혁명이다.

그러나 수천수만으로 이루어진 혁명대오에는 불순분자들도 끼여들다. 혁명의 거세한 기류를 타고 사리사욕을 쫓는 불순분자들도 대오안에 거여든 우연분자들, 혁명의 시련을 두려워하는 의지박약자들, 권력야심가들에게 아부아첨하며 기생충같이 살아가는 여러식은자들이 구석구석에서 쏠라다거리며 기회를 기다리곤 한다.

투쟁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투쟁없는 단결이란 무자비한 투쟁, 단호한 결별과 함께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고수되는것이다.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고 수령의 명령 지시를 거부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에 도전하는 종파를 그대로 두고서는 당의 통일단결,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혁명의 최고보수인 수령을 받드는 마음에 티가 많은 시꺼먼 심장으로 과연 혁명을 충실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몸바쳐 싸울수 있겠는가. 하늘에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자기 대오 안에 나타난 이색적이고 잡스러운것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선로동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온갖 불순분자들과의 칼날처럼 여러고 번개처럼 드림없으며 총구를 떠난 총알처럼 무자비한 투쟁속에 이루어진것이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전반적국면이 열리고

있는 오늘 당대에 숨어있던 불순분자, 이색분자들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려고 한것은 우연치 않다. 력대로 종파들은 혁명의 시련의 시기나 세대가 바뀌는 시기에 단결의 뿌리를 흔들어보고 회색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한중도 못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분파책동을 간파하고 단호히 숙청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그 무엇보다도 깨뜨릴수 없는 단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우리 당력사에 《단결》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뚜렷이 새겨지고있는 이 시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정치적야심가, 음모군의 하수인, 추종분자로서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자들의 말로는 혁명가의 신념이란 어떤것인가를 깊이 돌이켜보게 한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지 못하고 이 바람, 저 바람에 마음 흔들리며 대세에 따라 뜻을 다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이질적인 피가 흐르며 조국 신념의 기둥을 잃고 방황하게 되며 나중에는 정치적음모자들의 톱날로 되어 성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신념이 혁명한 오물같은 인간들은 단결의 대오에 우연히 들어섰다고 해도 언제인가는 쓰레기장으로 밀려나지 않겠단 안되는것이다. 신념은 단결의 초석이요.

수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온몸으로 간직할 인간만이 모진 추위와 굶주림도 있고 지어 회색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일관단결 수령을 따를수 있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 시기 조선의 방화선에 솟아오른 새별을 바라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번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라하고 노래부르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혈같은 충성이었다.

오늘도 조선혁명의 단결의 시련을 열여놓은 항일의 투사들이 주작봉마루에서 우리를 굽어보며 이렇게 웅변다. —신념을 떠난 단결이란 없다. 절해고도에서도 혁명가의 신념을 버리지 말라!

신념의 강자들만이 일심단결의 대오, 혼연일체의 대오를 이룰수 있고 그 대오에서 있을 때만이 승리의 년대기에 자기의 이름을 빛낼수 있는것이다.

신념은 시련속에서 검증된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이 높이 추켜든 신념의 구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돌이켜보자. 우리는 어떻게 고난속에서도 웃을수 있었는가. 이 나라 녀인들이 아침저녁 발가벗고 죽을 뻔하면서도 변함없이 출근길을 이어가고 청년들이 향유의 삶이 아니라 창조와 희생의 삶을 제일것으로 여기며 발전전진선장으로, 지하막공으로, 농촌으로 달려나갈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순간에도 《어디에 계시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고 불탄된 갠안에서 마지막힘을 모아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글발을 등발하며 새긴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정녕 무엇이었는가.

이 세상에서 조국과 인민을 제물로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어머니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최후승리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한다는 드물지 않는

신념이었고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장군님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소리없이 마음속에 뿌려내린 전사의 향사, 전사의 의리였다.

그렇게 고난속에서 다져진 우리의 단결이다. 화창한 봄날이 아니라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령도자를 알고 령도자에 대한 믿음을 굳히며 령도자의 두리에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이다.

수령과 대중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공고한 단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의 바탕에는 무엇이 흐르고있는가. 피눈물의 12월 슬픔의 눈보라속에 풍풍 얼어든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을 따듯이 녹여준 사랑의 해발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너무도 크나큰 상상의 아픔으로 하여 눈보라의 차디찬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있던 그때 발발에 놓여지는 불들이며 머리에 쇠위치는 수건의 피스한 물에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도록 새겨안았다.

이, 저분이다! 우리에게도 또 한번의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다!

새해 정초 군위당크병들과 억세게 팔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빨강색 상기된 얼굴들을 어루만져주시는 그이의 다심하신 모습에서, 심방어대의 평범한 군인가족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인자하신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친근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로부터 우리는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웠다. 유휘장군님에게 돌아난 잠조를 보시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던 그이, 신발이 흩어 발리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팔을 흘려서며 정성껏 나무를 심으시던 그이, 열정에 넘치는 걸음으로 조국 땅 방방곡곡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쏘올리고 핵시험장공복을 중회무진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리상의 기준을 매일, 매시각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절세의 애국자의 기록한 위업상에 머리를 숙이었다.

말로 우리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길 유일 한 삶의 요람이다.

그렇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모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을 꽃피워주시실수 있으며 오직 원수님만 따라야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강해지고 무궁토록 번영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하늘땅이 열백번 바뀔때도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밖에 모른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오직 김정은, 그 위대한 존엄만이 간직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이 세상 모든것이 변하여도 우리는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더 굳게, 더 억세게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혁명의 천리마를 끝까지 걸어나갈것이다.

조선혁명가들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같은 신념의 선언을 그대로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바뀔때도 역풍 불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평등한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혁명가들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같은 신념의 선언을 그대로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바뀔때도 역풍 불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평등한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혁명가들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같은 신념의 선언을 그대로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바뀔때도 역풍 불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평등한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혁명가들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같은 신념의 선언을 그대로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바뀔때도 역풍 불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평등한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혁명가들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같은 신념의 선언을 그대로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바뀔때도 역풍 불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평등한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혁명가들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같은 신념의 선언을 그대로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바뀔때도 역풍 불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평등한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혁명가들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같은 신념의 선언을 그대로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고있다.

... 하늘땅 바뀔때도 역풍 불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평등한 받들어가는 길에 진철이 막아도 주저없이 헤치고 실사 지피발이 가로놓이나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음을 꾸미는 종파로 전락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마음에 빈틈이 있지 않거나, 자그마한 티가 없지 않았는가를 부단히 돌이켜보며 자신의 한걸음 한걸음, 하루하루를 원수님의 거룩하신 보복에, 불같은 혁명시간에 따라세우자. 원수님께 높은 실적으로 기쁨을 드리는 충정의 인민, 원수님의 구상실현에 한몸 다 바쳤다고 땀땀이 자부할수 있는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가 되자.

혁명은 시시각각으로 비상한 각성을 요구한다.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곁에 있다. 혁명의 원수는 멀어만이나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앞에도 있을수 있다. 《동상이름》, 《양봉음위》라는 말은 결코 역사책의 갈피에서만 볼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앞에서는 수령만세를 부르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만물을 꾸는자들, 조국과 인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제살공리만 하면서 부패방탕한 생활을 일삼는자들, 이런자들이 같은 반역의 길뿐이다.

정신이 흐리터분해지고 앉을자리, 설자리도 모르면서 해미려는자들, 어느 개인에게 추종하는것으로써 자기의 존재명분을 세우려는자들, 몸속에 환강이 되고 졸타기를 하는자들은 영남없이 장성택들과 같은 정치적야심가, 음모군의 톱날로 된다 하는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백두의 혈통, 주체의 혈통이 맥맥히 이어져흐르는 우리의 조선로동당에는 그 어떤 잡것이 섞일 틈이 없다. 삼천리강산을 굽어보며 백두산이 거연히 솟아있는 한 우리 조선에는 백두의 피줄기만이 있을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이 계시고 백두산총대 가 있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이 살아숨쉬기에 우리 당은 찬란한 향도의 빛을 무궁토록 뿌릴것이며 이 땅에는 영원히 백전백승의 력사만이 흐를것이다.

조선로동당이어! 그대는 더 존엄하고 강해졌으며 더 순결하고 억세어졌다. 그대를 따르는 인민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억세어졌다.

병사여, 인민이어, 발걸음을 더 힘있게 내걸자. 신념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우리의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희망의 언덕을 향해 열렬히 넘쳐, 락판에 넘쳐, 신심에 넘쳐 달려나가자.

우리 당에 대한 믿음, 우리의 원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못 헤칠 난관이 무엇이고 못 넘을 평이 어디에 있으랴.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도 《장군님 따라 천만리》라는 신념의 웨침으로 쳐갈기며 자기의 력사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가 아니던가.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 애로와 난관이 막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원수님 따라 천만리》라는 신념의 피성을 터치며 용감무쌍히 돌진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으로 신군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더욱 정화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당을 따라 신심드높이 발걸음을 내짚으며 이 땅의 혁명가들은 소리높이 웨친다.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리라!

김 순 영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의 맹세 하늘땅을 진감한다. 본사기자 김성남 찍음

김정은 시대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

주제 102 (2013)년은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분계역선 자그마한 삽마을에 이르기까지, 기념비적건축물로부터 아동공원에 이르기까지, 초고층살림집으로부터 과학연구기지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내용과 형식, 건축의 주제와 양상 등 모든 면에서 새시대의 표준이 창조되었다.

1. 숭고한 인민관이 구현된 건축물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평양시를 주제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휴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건설의 최전성기를 론할 때 첫째는 특색이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한 속도이다.

올해 6월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시령스키장의 군인건설자들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역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시어, 이 호소문을 불쏘서 하여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비약과 변혁의 기치로 《마시령수도》창조의 기발을 휘날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쏘서 해주신 《마시령수도》의 거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마시령수도》창조투쟁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대건설의 본질과 특징, 그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의 길을 고통없이 헤쳐나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한시바삐 사회주의부강화를 앞장서서 우리 인민에게 대건설 전투를 열거시도 강력적으로 이끄시어 건설이 시작된 당대에 인민들이 그 덕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올해는 비례를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이 각 방면에 걸쳐 가장 첨예하게,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해였다.

그러나 그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한 수많은 대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온 나라로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며 진두지휘하시어 풍만한 결실을 안아오시었다.

건설대상수나 공사규모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 규모를 두고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초월하는 속도를 두고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근처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주강병원, 마시령스키장 등 우리 인민이 새시대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될 희한한 창조물들이 모두 단 한해동안에 일떠섰다.

파라다이스에 살게 될 희한한 살림집들이 일떠선다는 소식이 온 나라가 설레이던 것이 올해초였는데 단 몇달만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은 물론 그 구획안에 공공시설들과

우리 당이 인민들과 한 약속이 단 한해 사이에 현실로 이루어졌으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약속하는 힘과 휘황찬란한 목표, 무한대한 창조력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당의 명도아래 나라의 건축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올해를 건설의 최전성기라고 긍지높이 부르짖고 있다.

편의봉사망을 그 흔히 갖춘 옹근 하나의 거리가 일떠서 새집들이를 하는 경사를 맞게 되었다.

초고층으로 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그렇고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두가 《세상에 다시없을 물의 궁전》이라고 부르는 문수물놀이장도 단 몇달동안에 솟아올랐다. 10년이 걸리던 마시령스키장건설도 전격적으로 추진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하루빨리 아니라 한시바삐! 우리 인민에게 한시바삐 대대손속 복락을 누려갈 문명의 보급자리를 안겨주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열망은 비상한 창조속도를 안아왔다.

우리 당이 건설에서 요구하는 기본원칙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것이다. 인민의 요구와 편리에 부합되지 않고 발전하는 시대의 지향에 따라서 못한 건축물은 단 몇달동안에 일떠섰다 하여도 공중무각이나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방대한 건설전투들을 지휘하시면서 모든 대상물에서 질을 첫자리에 놓고로 하였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 인민들이 쓰고 살 건축물들이기에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모든 면에서 완전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 문명국의 표본이 될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건설물의 질에 대한 당의 요구이고 기준이었다. 그것은 곧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낳은 요구이고 기준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선린리성, 후미향성의 원칙이 모든 건설물의 질을 평가하는 첫째가는 기준으로 되었다. 설계로부터 시공, 주변환경조성 등 건설의 모든 공정들과 오소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것이 올해에 일떠선 창조물들이다.

온하과학자거리가 살림집체계는 물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병원, 상업과 세탁소에 이르기까지 편의봉사시설들을 그 흔히 갖추어 구획형성에서 나무랄데 없을 뿐 아니라 시공에서도 완전무결한 표본거리라면 한걸음도 넘어가 올리는 경쾌한 발발 굵소리과 더불어 승마바람을 불어오는 미림승마구락부는 그 어디에서도 미흡한 성과를 찾아볼수 없는 만점짜리 창조물이다. 문수물놀이장에 설치된 물미끄럼틀의 이음부에 생긴 작은 편차도 순간에 포착하고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있어서 안 된다 하시고 즉시 시공에 바로잡게 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였기에 물놀이장엔 나서는 사람마다 반영문에 《조선 로동당 만세!》라는 글자를 격정속에 적어 넣고있는것이다.

어제날에는 산보하러 마당으로 내려가서 주인들이 승장기를 타고 웃고있는 실내휴식

터로 올라가게 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그 훌륭한 살림집의 서재에 갖추어진 당반식책장 하나에서도 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하나의 세부도 놓치지 않고 마음쓰신 다심한 사랑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올해에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공원을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꾸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를 더욱 굳건하고 뜨겁게 하여준것은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들중의 하나이다. 건축물놀이장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친연색고림상이 정중히 모셔져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어머니 그 사랑과 손길을 몸 가까이 느끼며 그이의 품에 안겨있는 무한한 기쁨을 안고 마음껏 즐길수 있게 되었으며 미림승마구락부는 연혁소개설이 꾸러져 찾아오는 사람마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다.

모든 건축물들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고 바로 그런 곳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경중히 모셔 언덕나 대원수님들과 함께 있고싶어하는 인민의 념원을 실현시켜주신 그 숭고한 뜻과 건축학적예지에서 사람들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13년 건설의 최전성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꽃피워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생활을 한시바삐 안겨주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창조, 숭고한 인민관이 반영되어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념원하시던 우리 인민들께서 설계하신 새시대의 문명이 시시각각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텔레비전화물감상할수 있는 영화관이 풍요로 손색없이 일떠섰는가 하면 제2의 의화이라고 부르는 가능회복치료봉사기지가 곳곳에 생겨났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끌고있는 비석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인 기지가 훌륭하게 꾸려진데 이어 각 도에는 능력이 큰 비석공장들이 완공의 날을 가까이 하고 있다.

건축물마다에 그것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초와 지반이 있다면 그밑에는 해당 시대를 특징짓는 정치철학이 놓여 있다. 인류의 건축역사에 세계의 기적으로, 인간의 창조적능력의 대표적기법으로 전해져

2.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비낀 건축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한 명도밑에 우리의 주제건설은 단숨에, 단번에 비약하여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

올해에 일떠선 모든 건축물들은 사상에 숭고성이 기능적측면에서 완벽한 건축예술의 결정체이다. 건축물들이 자기의 사명과 성격, 기능적요구와 주변환경에 맞게 공간구성이 다양하면서도 효율적일뿐 아니라 건축미학적으로 세련되고 정교하게 시공된것으로 하여 건축예술의 결정체가 이루고 있다.

문수물놀이장은 종합적인 문화정서생활 기지로서의 사명에 맞게 아기가자하고 류점점이 나게 공간을 구성하고 푸른과 림색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특색을 살리었으며 현대적인 설비들과 우리, 타일과 같은 마감재들의 조화로운 배합으로 현대미를 강조한 하나의 대건축예술선정성이

내려오는 건축물들이 적지 않다. 피라미드와 궁전들의 웅장화려함과 신비한 건축예술은 비록 인민의 지혜와 피땀으로 이루어진것이지만 당대 지배계급의 무제한한 권력과 향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전해져올 뿐이다. 인민은 어느때나 건설의 주인공이였지만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민의 착취자들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이 땅에 건국의 첫삽을 박을 때부터 오로지 인민의 복리와 문명을 위해 인민의 편리와 향유를 위하여 건설을 설계하고 완공의 테프를 짰어왔다.

전경으로 고생한 인민들이 반토코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전후 재건기에서 살림집과 학교건설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신 아버지수령님과 탁원거리와 광복거리, 통일거리에 이어 창경거리와 희천발전소와 같이 인민생활과 직결된 대건설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온갖 로고와 심혈을 우리 인민은 오늘도 가슴뜨겁게 회고하고 있다.

그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는 이 땅우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

올해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건축물들을 한곳에 다 모아놓을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이 땅에 솟아날 사회주의문명국의 축소판으로, 인민대중중심의 호화로운 새 도시의 표본으로 될것이다.

건설의 최전성기에 태어난 자랑찬 창조물들에서 우리는 한없이 친근한 인민의 명도까지 무한대한 사랑을 뜨겁게 새겨안고 있다.

문수물놀이장건설 하나만 놓고서도 무려 110여차례나 형성안을 지도해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림없이 건설현장을 찾으며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원수님께서 물놀이장모형사관을 집무실에 두고 보고 또 보시며 탐구의 건진발을 지고수신물 아는 사람은 믿기지 못하다.

에로부터 건축물들은 시대상이 비친다고 하였다. 해당시기 경제, 문화의 발전수준과 함께 정치의 본질이 반영되는것이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다.

이후 후날 우리 후대들은 2013년이 낳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보면서 《마시령수도》라는 말에 담겨진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으로 새겨안게 될것이다.

다. 그런가 하면 미림승마구락부는 건물들의 주변환경과 친숙하게 언어오도록 환경처리에 힘을 넣고 건물들의 내외부장식도 자연미를 극력 살리는 방향으로 형성됨으로써 편리하면서 동시에 형식상으로도 일떠서게 되었다.

동시에 맑게 모든 세부들이 재미나고 감격하게 형성된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하여 당의 명도밑에 일떠선 새시대의 건축물들은 하나같이 정제되어 완벽하다.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견제는 물론 목지조성과 불장식 지어 간판과 마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진시기와 확연히 구별되는 시대한 변화가 일어나 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내어왔다.

뜻깊은 올해에 건축설계자, 건설전문가들의 안목이 높아지고 건축예술창조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

건축예술창조에서 목표와 기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창조수법에서도 도식과 틀이 깨어져 세계적인 우리것을 지향하는 야심만만한 창조열풍이 불어오고 있다.

건설설계와 시공분야에서 권위있는 건축가나 전문가들이 이 한해동안 위대한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과정에 하나의 대학을 새로 나온것 같다고, 올해에 건설된 세계적인 창조물들은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시공, 마감처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떠나 혼합수 없었고 가슴뜨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대건판과 본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참관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도 웅장함을 더해주게 되고 주변에 계획되었던 광장이 푸른 주단을 제공하는것 같은 특지로 변하였으며 하나의 형상수법으로 문주의 품격이 비상이 살아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건축가들은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비범한 창조력을 배웠다.

승마장처럼 말과 자연미, 스키장처럼 먼 눈과 신선미, 물놀이장처럼 물과 현대미라는 중자를 확고하게 틀어쥐고 두루마기에 구두를 신은것과 같은 불일치를 없애면서 건축물의 내외부형성에 증가가 일관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오늘과 같이 개개의 건축물들이 다 자기 특색과 고유한 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건축학식력앞에 전문가들 모두가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동서해를 편경하는 로선에 멀리 앞을 내다 보면서 세계곳지의 마시령스키장을 건설할 때조차 관광의 계절적제한성과 로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수 있게 한 천재적예지에 누구나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올해동안 건축창조분야에서 일해온 권위 있는 한 일꾼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에 일떠선 건축물들이 모두 세계적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원수님의 비범한 안목과 실력은 세상을 굽어보는 아득한 높이에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시공전문가들도 무색케 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건설의 대가이시라고, 동시에 많은 건설대상들을 붙이 변형나게 해제기는 그 비범한 통솔력에 경탄한 정도 많았고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공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지도에 머리를 숙인적이 많았다고 대건설전투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은 한결같이 매혹의 감정을 터놓고 있다.

외국의 건설전문가들과 방문객들도 《마시령수도》창조의 불길은 지켜주시고 군인련합작전으로 거창한 대건설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명도력과 조선의 눈부신 발전속도, 그 비약적인 수준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 조국은 한해동안 높이 올라섰다.

이 땅우에 희한한 건축물들이 솟아나는 것 동시에 사람들의 로부가 지주라라고 꿈도 많아졌으며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창조적능력이 훨씬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창조력의 높이만큼, 무한한 인민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건축예술수준은 비약적으로 올라갔다.

진정 올해에 이 땅우에 일떠선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은 일찌기 팽활한 세계를 굽어 보시며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만복을 누리게 할 숭고한 리상과 애착을 가지고 키워온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부적인 건축예술가적자질과 만능의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의 산물이다.

올해에 일떠선 건축물들의 특징은 전체를 찾아볼수 없는 대단한 목표, 반복과 모방이 전혀 없는 창조적인 설계, 일단 결심하면 화약이 불이 달린것처럼 번개같이 해제기는 단숨에의 속도, 티끌만 한 부족점도 허용하지 않는 최상의 완벽성, 조선의 기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앞서나가려는 철저한 주제성이다.

이 모든 특징들에 앞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건설부문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신적인 로고와 심혈에 더욱더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13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보도들중에서 건설부문에 대한 현시지도는 많은 지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곳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으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지도는 《로동신문》에 공식발표되었던 해도 무려 5차례 달한다. 이 과정에 《113건의 형성안》이라는 혁명일기가 생겨났다.

나라의 자주적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격렬한 반제반미대결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면에서도 그처럼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서 조국청사에 전례없는 건설의 대번영을 단 한해동안에 안아오신 위대한 행부의 창조자,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동지께 인민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 당은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날 올해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여 원수님의 대번영기를 펼칠 준비단계로 보고 있다.

기적과도 같은 올해의 건설부문 성과물과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펼쳐진 건설에서의 대번영기를 확신성있게 예언해 주었다.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의 호소이다.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력과 깊은 건설대상들을 붙이 변형나게 해제기는 그 비범한 통솔력에 경탄한 정도 많았고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공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지도에 머리를 숙인적이 많았다고 대건설전투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은 한결같이 매혹의 감정을 터놓고 있다.

당보에 확고하고 정량은 휘황하다. 문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 발견을, 세계를 굽어보는 높은 수준, 비약적 독창적면에서도 위대한 건축예술의 높은 경지에 어떻게 따라서는가 하는것이다.

당의 숭고한 뜻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우자면 고결한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만능의 창조력을 지녀야 한다.

누구나 두뇌전으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높은 실력을 지니기 위해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데서 한몫 든든히 맡아 해제기는 창조적 능수, 만능의 실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천만 군민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라볼수 있도록 《마시령수도》로 힘차게 내달려 이 땅우에 세세년년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 나갈것이다.

김진수, 주창선

백두의 선군령장 받들어 세월끝까지 생사를 같이 하리라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화답하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내 나라의 하늘가에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회상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걸친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준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주제사상,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일갈을 밝혀주고 당의 현명한 명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일떠선다는 소리는 혁명적일이다.》

12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는 그야말로 눈보라폭풍이다.

혁명의 원수들과 혁명대오에 끼여든 유년부자, 불손이색분자들은 눈보라를 두려워한다.

혁명의 신념과 의지를 버려주고 온갖 허접스러운것을 날려보내며 흰눈의 순결함을 지키는 눈보라를 천만군민은 늘 마음에 안고 산다. 그드세한 눈보라폭풍에 의해 혁명이라는 거목에 붙어살던 해물은 썩은 가지가 이면에 가슴후련하게 떨어져나갔다.

선군으로 부르짖는 하늘아래에서 온갖 오물들을 쓸어버리며 건설의 최전성기를 대번영기로서 더욱 고조시키려는것은 우리 당과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하여 힘있게 과시되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며 백두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이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되며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어제도 오늘도 절대변변의 신념과 의지로 세계를 개척해왔다.

그 신념과 의지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민족의 태양을 모시어 지니게 된 조선의 무적막강한 힘을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단 받아안게 된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행운이며 세기의 자랑이다.

태양은 무궁무진한 빛과 열로 위대하며 그 광휘로움은 오래 살아보아야 느끼는것이 아니다.

눈내리는 12월 피눈물속에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자신의 전우, 동지라고 하시며 새해의 첫아침을 시 105 땅고사란에 가보라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에 달려왔다 하시며 군위망크병들의 언 손들을 뜨겁게 잡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정녕 사랑이요 열이다. 힘은 있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될수 없으며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으셨다.

온 나라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신뢰를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가 주시하던 경국연단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총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실 때 인민은 앞날에 대한 환희보다 먼저 가슴속에 북받쳐오르는 위대한 힘을 느끼었다.

이 위대한 힘에 떠받들리어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철룡같이 다져졌으며 우리의 국력은 배배해졌다.

오랜 정치경력을 가졌고도 자부하는 정치인도 지닐수 없는 힘을 우리의 원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천만심장에 부여주시었으니 그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은 우리는 김정은동지밖에 모른다 단 한마디이며 뿜어져나오는 것은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뿐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 하리라》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굽어치는 정진은 수령결사옹위 정신이다.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 중대한 시련의 시기를 맞이한 주제 45(1956)년을 겪은 세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때를 잊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명도 없다.

전전이 된 때로부터 전달돼왔으며 세번째 피는 해에는 복진을 한다며 끼여든 한층도 못되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자립적민중경제건설로선을 헐뜯던 나머지 정면으로 도전해왔다. 예술혁명 《이 세상 끝까지》에서 보여주듯이 앞에서는 인민생활을 두고 계산도 들어내며 배어줄듯이 살갑게 놀다가 솟아나오지는 먹자편을 벌리며 당정책을 시니하는자들이 력사앞에 드러내는 진적분자들은 더러운 배신자의 추악한 몰골이었다.

당시 아버지수령님께서 시련의 역경속에서 굳게 믿고있던 것은 우리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이었다. 그 모습속에는 가렴저렴한 진화의 나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이 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솟아 빛나라고 맹세하다지던 인민군용사들도 있었으며 미국놈을 쳐부신들 부근정들은 문제라도 되지 않는다고 하던 혁명의 로동계급과 포화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장산리의 녀성들도 있었다.

이 1956년 9월 10일 김정은 일

길지 않은 글밭에 그 어느 위인도 발견하지 못한 위대한 사상이 있었으며 천만대적도 굽어보는 평양의 기상이 빛났었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핵은 이렇게 마련되었으며 장장 수십년을 두고 금강석처럼 굳건해지고 태양계와도 같이 커졌다.

일심단결의 핵을 명명백백히 밝혀두고 한층더 단결한 천만군민의 일심 단결을 역력으로 다져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신 정초는 수령의 영원한 전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귀한 희생으로 수령결사옹위는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천만군민의 생명이며 혁명정사의 영예이고 의무라는것을 보여주셨다.

우리 혁명이 력사의 맞을 올린 때로부터 근 한세기의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으로 뽐내며 우리 위대한 동지로 모시고 천만군민이 생사를 같이해나가는 성스러운 력사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골을 꽃피운 길에서 천만군민을 전우, 동지라고 굳게 믿어주시는 위대한 동지인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령도만 받들어가 금강석처럼 굳건해지고 태양계와도 같이 커졌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맹세 더욱 굳게 다지는 원심철도차량련합기군수 로동계급 특파기자 신철일 찍음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맹세 더욱 굳게 다지는 원심철도차량련합기군수 로동계급 특파기자 신철일 찍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특대사변-조선의 첫 실용위성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 1뿔을 맞으며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과학기술위성제작과 발사에 성공한것은 래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대장사이며 천만군민에게 필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선은 결심하면 반드시 이룬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특대사변이었습니다.》

주제 101(2012)년 12월

택한것과 관련하여 천명된 조선의 립장이었다. 반인륜적이고 횡포무도한 날강도적외국에 통쾌한 대답을 준것이었다.

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거세찬 충격을 안아온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는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선택이었다. 모택동의 소굴들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론의가 분분히 벌어지고 최첨단외국수단들과 방대한 현대적무장장비들이 《용정》과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태평양과 그 주변수역들을 어지럽게 들이치고있는 상태에서 내린 선택인것으로 하여 그 충격은 실로 비상한것이었다.

그러나 실사 그보다 더한 온 세상의 무장장비들이 다 물러나다 하여도 조선은 달리 선택하지 않았을것이다. 절대로 포기할수도, 추호의 양보도 할수 없었던 그 선택의 리유는 바로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라라는것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었기때문이다.

-조선사람들은 왜 김정일명도자의 유훈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결사관철하려 하는가.

만약 세상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 우리 인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대답할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훈속에 변형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있고 존엄높고 행복한 우리 인민모두의 삶이 있기때문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는 어버이장군님의 명전에서 다진 이 나라 인민의 총성의 맹세였고 조선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존엄한 투쟁이었다.

정녕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재료거나 또 어떤 연료의 결합체이기 전에 우리의 빛과 심장, 꿈과 슬기가 빠져 되고 살과 피로 응결된것과도 같은 하나의 생명체였다.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이었다. 결코 사연없는 《단순에》가 아니었던것이다. 장장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자가 력력히 어러있는 승리, 피눈물을 가슴에 모으시고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미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고 노래하시던 그 모든 낮과 밤들이 안아온 환희의 《단순에》였다.

주제101(2012)년 12월 12일,

그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첫 실용위성을 쏘올린 날인 동시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었던 원대한 리상과 고귀한 헌신에 대하여 더욱 알게 된 날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힘과 슬기, 담대한 배짱과 신념에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명전에서 다진 조선인민의 피눈물의 맹세가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것이며 장차 이 나라가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갈것인가를 온 세상사람들이 집합한 날이었다.

며 싸워야 하며 창조적 세계와 리상의 높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실천적모범으로 된다. 그의 행도를 받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열백만 뒤집힌다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 여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도 있고 존엄높은 우리의 삶과 변형, 영리한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새겨안았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곡면을 열어나가자!》는 투쟁구호를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나온 한해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희한하고 멋있는 창조물들을 눈부신고 빛내세웠다. 우리의 휘황한 래일은 그렇게 다가오고있으며 모든 승리로 그렇게 이어지고있다.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계속 날아올라올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위성이 백개, 천개를 넘어 무수한 별무리를 이루게 될 먼 후날에도 인민은 결코 《광명성-3》호 2호기를 잊지 못할것이다. 백두산천출유인의 현명함도 따라 온갖 원수들의 도전과 만년시련을 파궤히 짓부셔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광명성-3》호 2호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총정의 별, 승리의 별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영원히 빛나는 별

인류사의 갈피에는 크고작은 사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왔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꿈으로 간주하여오던것이 현실로 되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괴담과 괴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어떻게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향식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사추위위의 길출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발사!

주제101(2012)년 12월 12일 9시 49분 46초는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조선인민의 삶의 증경사와도 같고 세계사추위위의 새로운 장을 알리는 선언문과도 같은 력사적문건에 백두산위인의 힘있고 활달한 필체가 새겨져있다.

《담중양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것!

김정은

2012.12.12

그이의 발사명령을 받은 운반로켓트 《은하-3》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싣고 마침내 기세찬 평음을 터치며 하늘로 치솟았다.

은몸이 그대로 위성과 함께 우주로 날아올랐지만 같은 그 시각에 결정되는것은 단지 과학기술적문제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조선인민의 힘이 어떤것인가, 세계에서 자기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낼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일대 격전이였다.

반세 몇십년전부터 위성을 쏘올렸다고 하는 나라들도 불리한 기상조건때문에 위성발사를 주저하는 12월에 단행하는것으로 하여 더한층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흘렀다.

드디어 9분 27초만에 우리의

단숨에-

첫 실용위성이 자기의 궤도를 우주에 새기었다. 김정일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담보 불멸의 혁명송가들이 전과를 타고 온 행성에 퍼져나갔다.

진보적인인류만이 아니라 적대세력들까지도 우리 위성발사성공의 경란할 의의를 다투어 평가하였다.

《주체사상이 우주에 도달하였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통쾌한 사변》,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제국주의는 멸망한다는것을 재확증한 력사적인 사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배짱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변》, 《세계가 조선을 다시 알게 한 위대한 사변이다. 조선민족은 위대한 민족》...

피눈물이 흐르리라 예측하였던 12월의 조선에서는 경축의 노래소리와 함께 환희의 춤물결이 일렁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은 그이의 유훈을 빛나게 결사관철하는 것으로 지켜드린 영웅적군대와 인민이 펼쳐놓은 총정의 꽃바다, 승리의 꽃바다였다.

《단순에》의 노래가 전인민적감정의 격랑을 일으키며 조국공간에 메아리쳐갔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노래가 조용히 울리고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눈물겹게 들으시던

영원히 빛나는 별

특대사변으로 21세기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왔다. 그것은 자주와 진보, 예측과 반동간의 괴할수 없는 력사적 대결이였으며 경에하는 나라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괴담과 괴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어떻게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향식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사추위위의 길출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영원히 빛나는 별

특대사변으로 21세기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왔다. 그것은 자주와 진보, 예측과 반동간의 괴할수 없는 력사적 대결이였으며 경에하는 나라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괴담과 괴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어떻게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향식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사추위위의 길출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영원히 빛나는 별

특대사변으로 21세기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왔다. 그것은 자주와 진보, 예측과 반동간의 괴할수 없는 력사적 대결이였으며 경에하는 나라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괴담과 괴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어떻게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향식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사추위위의 길출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선

《로동신문》 2012년 4월 18일부에 실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유엔안보보장리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것이다.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선

12일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회망깊은 새해의 첫새벽처럼 소중한 간직된 뜻깊은 날이다. 내 조국의 대지를 용용히 밟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로 날아오른 그날로부터 한해가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뜨거울 열기를 더해주며 여전히 식을줄 모른다.

선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치위성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올릴것이다.

과학기술목적을 위하여 우주를 힘차게 정복해나가는 조선의 앞길은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발사를 두고 유엔안보보장리사회에서 천만부당한 의정성명이라는것을 제

선

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한분비전 항일혁명렬사들의 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찾은 대강습참가자들은 중앙홀에 높이 모신 백전백승의 강령의 명장 김일성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전승기념탑 《승리》상 앞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고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기념관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전하는 시대의

영원히 빛나는 별

특대사변으로 21세기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왔다. 그것은 자주와 진보, 예측과 반동간의 괴할수 없는 력사적 대결이였으며 경에하는 나라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괴담과 괴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어떻게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향식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사추위위의 길출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영원히 빛나는 별

특대사변으로 21세기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왔다. 그것은 자주와 진보, 예측과 반동간의 괴할수 없는 력사적 대결이였으며 경에하는 나라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괴담과 괴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어떻게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향식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사추위위의 길출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영원히 빛나는 별

특대사변으로 21세기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왔다. 그것은 자주와 진보, 예측과 반동간의 괴할수 없는 력사적 대결이였으며 경에하는 나라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괴담과 괴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어떻게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향식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사추위위의 길출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전람회 및 전시회 진행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인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인 리보익이사의 묘, 아버님인 김경직선생님과 어머니인 강반석여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천재적예지와 신성한 사상리론활동,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되새겼다.

대강습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수령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재부로 빛내주시고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만들어주시는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돌이켜보며 어머니의 동생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렬사릉의 화환전진대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력사통을 돌아보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백육같은 충정을 지니고 조국의 해방과 인

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한분비전 항일혁명렬사들의 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대강습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기념관참관객들을 돌아보았다.

화환전진대 《영웅들의 빛》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영웅전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영웅전사들의 삶을 금별로 빛내주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 리념과 뜨거울 열정을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력사표를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명도밑에 우리 당의 건설된 은하리화자거리와 미림삼대구락부,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참관하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온갖 로고를 바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가슴깊이 새기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특대사변-조선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대한 감동을 표시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특대사변-조선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대한 감동을 표시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특대사변-조선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대한 감동을 표시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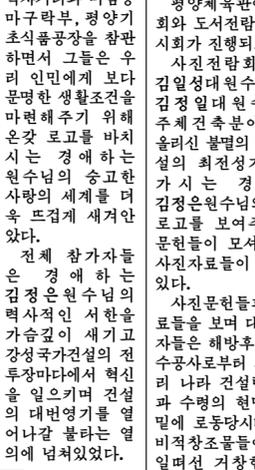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특대사변-조선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대한 감동을 표시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에 파도르에서 개막된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가 진행되고있다.

8일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전시회장에 모셔져있다.

전시회장은 주체적청년운동의 강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렬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으며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훌륭히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소개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화첩,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청년들이 승리의 력사를 계속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 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양보와 굴복은 죽음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더욱 횡포해지고있다. 맹진종시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져 자유와 평화, 민족반영을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고 세계를 저들이 관을 치는 무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정치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차이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특출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떠벌었다. 미국방장관 헤이글은 21세기에 미국이 계속 인권을 자유,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제창했다.

서방의 일부 세력들이 《국제사회는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을 영원 필요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의 언필요로 하고있다. 이와 같은데서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세계에는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다.

자주, 평화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인민대중의 전정인 없는 평화로운 환경속에서만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념원은 제국주의의 자들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실현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인민들의 념원을 가로막는 기본장이다. 자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념원은 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반대하는 지렬한 투쟁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하고 그로 하여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역사적 진전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하고 그로 하여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역사적 진전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하고 그로 하여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역사적 진전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자기의 침략적본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일삼는것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변하는것이 있다면 침략적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항상상적으로 대하여 그들의 《혜택》을 바라는것은 어리석은것이다.

제국주의의 자들과 타협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 자주권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스스로 죽음을 길을 걸을것밖에 없다. 이라크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는 한때 미국에 강경하게 맞섰지만 페르샤만전쟁이 개시되자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공격과 위세에 공포를 느끼고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페르샤만전쟁이후 이라크가 완전히 총을 놓고 항복할것을 요구하면서 10년이상 계속적인 공습과 가혹한 체제를 들이쳤다. 미국의 힘과 압력에 눌려온 이라크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라크지도부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나라의 중요시설들을 포함한 군사대상물들을 강제사찰에 내맡겼다. 나중에는 대통령경전에 대한 사찰까지 허용하였다. 이라크는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침공을 모면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이라크가 양보하면 할수록 미국은 이라크에 더 큰 압력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군사적압력을 들이대곤 하였다.

결국 미국은 2003년 다년간의 제재와 공습으로 약해졌던 이라크에 대해 무력침공을 강행하여 손쉽게 싸당정권을 뒤집어엎었다. 한치의 양보와 후회, 굴복으로부터 시작된 사태가 거저다준 후과는 이처럼 치욕적이었다.

리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86년 4월 미국은 전투기들을 출동시켜 리비아의 수도와 항구도시에 폭탄을 퍼부어 가다피의 처와 양말을 죽였다. 미국은 가다피가 이호된 공격을 받은 다음 더는 서방과 강경하게 대결하지 않을것이라고 보았으나 그는 《우리는 마지막 한방울의 원유가 다 탈 때까지 유정들을 쟁그리 불태워버릴것이다. 만약 미국이 리비아를 침략한다면 한방울의 원유도 얻지 못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리비아는 미국의 편이든 군사적공격과 경제제재를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통하여 이라크를 타도한 직후인 2003년 12월 리비아는 굴복하였다.

리비아는 자국의 비상수기계획을 공개하고 그것을 철회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결정을 비준한 가다피는 그것을 《혁명한 결정》, 《용감한 행동》으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자들의 강권행사에 투항하는 길이었다.

하다면 절대로 제국주의에 투항하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하고 오래전부터 반미강령이 강하다고 소문난 가다피는 어떻게 되어 하구아이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었다.

미국은 9.11 사건을 계기로 《반테러전쟁》을 광범적으로 감행하면서 핵전쟁공격전략을 공공연히 제창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였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불매국가》로 지정된 리비아는 다른 나라의 비극에서 옳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였다. 가다피는 미국의 남강도적인 전쟁위협과 허장성세앞에서 리비아 다음날의 공격대상을 필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하여 미국이 이라크공격을 개시한 2003년 3월부터 미국과 핵 및 화학무기계획과 관련한 회담을 벌

렸다. 2004년 1월 리비아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군사장비제거도면을 미국에 바치고 미국은 20여의 핵설비와 장거리미사일유도체제를 실어내었다.

미국은 리비아가 이렇게 나오자 당장 큰 대가를 지불할것처럼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리비아를 속속까지 벗기기 위한 기만전술에 불과하였다. 리비아는 무장장비를 폐기한 대가를 지불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또다시 갱신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가다피는 영국의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지만 아직 그 어떤 배상도 없다. 미국으로부터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지 궁정적인 행동을 있기를 바란다.》는 김빠진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소연에 불과한것이였다.

2011년에 미국은 이미전부터 준비시켜서 반란력을 부추겨 폭동을 일으키게 한 다음 군사적행위를 가하여 수도 타라브스함락작전을 감행하였다.

리비아의 실례는 제국주의의 자들과 타협의 죽음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제국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해 원칙적립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의 침략성과 타락성을 특특히 가려낼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와의 투쟁을 벌일수 없게 된다.

현시기 인류의 자주위업, 평화위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이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사소한 자주권위협에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결격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

자들에 대한 환상은 타협과 양보의 전제로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자연히 그에 기대를 가지게 되며 나중에는 타협과 양보로 《혜택》을 입으려는것과 같은 얼빠진 생각을 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야 한다. 적에 대한 공포심은 양보와 추종, 굴복을 낳게 한다. 적을 무서워하면 주눅이 들어 제 할 소리로도 제 할 일도 못하며 자주성, 주체성을 잃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게 된다. 이것은 제존으로 노예의 운명을 걸머지는 비극적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자주적대응방식으로 미국의 강권정책에 초강으로 맞서야 한다. 제국주의의 자들의 행사는 힘으로 맞서 무자비한 정벌로 대답하는것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지는 길이다. 그러자면 군사적힘을 키워야 한다.

자주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는 적들과 당황히 맞서 강경하게 싸우는 나라의 민중의 힘에 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우선 조선반도는 진보와 반동, 평화력량과 침략책사의 가장 심각하고도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핵전쟁장비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주기적으로 벌리면서 핵공격을 일삼고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인민이 저들의 강권정책에 겁을 먹고 양보와 굴복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소동으로써도 우리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되돌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의 한결로 억세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외국인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품모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김일성상사사회, 국제김정일상사회, 세계김정일상사회, 세계김정일상사회 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을 방문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신들이 더욱 강렬해진다. 각국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시였다.

그이 나니의 스승이시였다. 몽골청년혁명대표단 단장이유오인 명호바트는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의와 같이 인민의 평등자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그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인간사랑의 화신이시였다.

조선방문을 통하여 그이에 대한 조신들이 그이에 대한 얼마나 열렬한가를 깊이 절감하였다.

로세야 나호드카 겔로노에 호자이스트브유한철회사 부사장 배베 미셸요는 이렇게 강조

인간사랑의 최고화신

김정일동지께서 받으신 훈장들과 메달들, 명예칭호들을 보면서 그이시야말로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위인임을 확신하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주시였다.

그이 인민들의 인민의 평등자이다. 그의 현명한

평등자가 있어 이 땅위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인민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뜨겁게 불꽃이 되고있다.

중국 불산시 순덕구 주지현 림루화유한공사 총경리 추위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가 3일 하루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동지의 서거 20주

김일성동지의 서거 20주와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위성발사

중국에서 얼마전 《시헝-5》호 위성을 쏘 올려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켰다.

위성은 주천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2》호(정)운반로켓에 의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우주공간기술시범과 환경탐측에 이용되게 된다고 한다.

보건의료양성노력

쿠비에서 보건의료단체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3일 브렌싸 라피타통신이 발표하는데 의하면 1961년 이래 나라에서는 13만명 이상이 의학대학을 졸업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4만 7000여명이 대학들에서 의학공부를 하고있으며 2만 9000명 이상의 의료인들은 재교육과정을 거치고있다.

파악 압수

폴름비야경찰이 최근 겨우 겨우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서 화물자동차에 감추어졌던 2t의 마리후

경제침체, 실업자 증대

프랑스의 한 경제단체가 2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1월이 계속적으로 자동차판매량이 그 전달에 비해 4.4%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에서 10월이 살림집판매량이 그 전달보다 3.8%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 나라들에서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림집가격이 계속 올라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3.4분기이 전국적으로 살림집가격이 그 전분기에 비해 2% 비싸졌다

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련속 이음분기

가 그것을 계속 꾸미고있다고

가 그것을 계속 꾸미고있다고

아시아의 회회의 제 6 차 총회 에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이 연설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있는 아시아의 회회의 제 6차총회에서 9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단장인 김일성의 연설이 있었다.

그 총회가 가지는 의의와 아시아인민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 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적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경제위기의 후과가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현실은 아시아나라 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사회적협조로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것을 요구하고 있다.

습근평주석 군대에 대한 당의 경도를 견지할데 대해 강조

습근평 중국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얼마전 제남군구의 부대들을 시찰하면서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경도를 견지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국제무대에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반대성은 운동이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유엔본부에서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행사에 관한 유엔위원회의 주최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세계연대성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본부 관리들, 유엔주재 팔레스티나상임대표 등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사건전시회와 팔레스티나영화감상회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평화회담이 재개된 속에서 진행된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지난해 팔레스티나가 유엔비안권주위를 획득하고 20여년간 이스라엘감옥들에 갇혀있던 50여명의 팔레스티나

가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것은 미국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것은 미국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것은 미국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가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것은 미국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것은 미국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것은 미국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이것을 청산하는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방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한다.

조선반도는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배려를 늘리고있는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강화되는 연대성 운동

인수감자들이 최근에 석방되는 등 중동평화과정에서 진전이 이룩되며 대변 언급하였다.

팔레스티나문제의 해결방도는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을 기초하고 동부구드스의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를 창건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팔레스티나명토에서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과 유엔결의에 비추어볼 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단언하였다.

발언자들은 팔레스티나가 가까운 년간 유엔정정원칙의 지위를 획득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팔레스티나인민의 위업에 지속적인 지지와 반대성을 표시해줄것을 국제공중에게 호소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26일 유엔총회에서는 2014년을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결사적 해방투쟁의 해로 선포할데 대해 팔레스티나인민의 빼앗을수

없는 권리행사에 관한 유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기된 결의를 110개 나라가 찬성하였다.

이것은 빼앗긴 평토와 권리를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반대성이 날이 갈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또한 침략과 약탈을 일삼고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정면 도전해나서고있는 유대복고주의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된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유대복고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자주와 독립을 갈망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이러한 권리를 되찾으며 독립국가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세계평화와 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로써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수는 377만명에 달하며 이 기간 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6일 성보건강국은 30살 남성이 H7N9형조류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러한 권리를 되찾으며 독립국가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세계평화와 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로써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수는 377만명에 달하며 이 기간 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6일 성보건강국은 30살 남성이 H7N9형조류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러한 권리를 되찾으며 독립국가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세계평화와 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로써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수는 377만명에 달하며 이 기간 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6일 성보건강국은 30살 남성이 H7N9형조류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